

artist

WinterviewW

헬렌 반 미네에게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파란 구슬처럼 단단한 눈으로 정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다. 사진가의 카메라가 긴박한 셔터 소리를 낼 때마다 코드를 쫓은 조명이 재채기하듯 번쩍거렸다. 갤러리의 파리한 벽에 기대 선 그녀는 꼳꼳하고 무표정했는데, 그건 미심장함을 조금 덜어낸, 일종의 제스처 같기도 했다. 창백한 낮빛과 무심한 눈빛이 벽에 걸린 소녀들의 얼굴에 가만히 포개졌다. 무심코 말했다. “사진 찍히는 얼굴이 당신의 모델들과 닮았군요.” 그녀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열게 웃었는데,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건 부정하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녹음기가 돌아가고 정확히 17분 후에, 그녀는 실제로 ‘아니다’ 라고 말했다. “난 내 모델들과 닮지 않았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안경 너머로 렌즈에 확대된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보였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아니까.” 17분부터 21분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는 헬렌 반 미네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이자 가운데부분, 시작이자 끝이자 모든 것이었다. 그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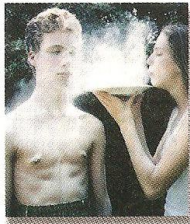
“30대가 되면 우린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로 결정되고, 고정되지요. 하지만 사춘기를 겪는 소녀와 소년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가졌고, 모든 것에 대해서 깔깔 웃어대지요.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고,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건 계속 자라고 변화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열려 있어요. 나는 사춘기의 그런 점에 매혹되었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아직은 모른다는 것.” 그리고 30대 중반인 그녀는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이 안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선이 고운 소년과



아름다운 시절

hellen van meene

헬렌 반 미네의 소녀와 소년들은
 좀처럼 당신의 눈길을 마주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은 옆과 아래,
 창문 밖을 내다보며, 보는 이의
 감상이 끼어들 조박한 여백을
 내어준다. 헬렌 반 미네는 오직
 자연광만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런
 이 섬세한 피사체들에게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PHOTOS | EOMSAM CHEOL

북구의 낮빛을 가진 소녀, 오소소 소름이 돌아난 다리를 드러내고 나무에 기대어 선 소녀의 사진이 걸린 벽에 지구만 시선이 갔다. “어떤 사람들은 내 모델들이 슬퍼 보인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저 평범한 침대들이 갖는 표정일 뿐이에요. 그들이 가진, 조금 다른 감정이랄까.” 사춘기란 보편적이며 개별적인 경험이다. 모든 이에게 일어나지만 모두 똑같은 손 없는 경험, 그럼에도 계단의 같은 지점을 밟는 것 같은 공통의 경험.

이름과 성을 잇는 ‘van’은 헬렌 반 미네가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것을 귀띔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뉴욕 MoMA, 구겐하임,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의 벽을 아우르며 전 세계를 누빈다. 처음에는 태어나고 자란 네덜란드 알크마에서 낮이 익은 이웃의 침대들을 찍었다. 하지만 그녀가 찍은 얼굴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작품의 제목은 대체로 ‘untitled’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한 소녀나 소년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요. 작품에 ‘수’나 ‘바바라’ 같은 이름을 붙이면 그 순간 그것은 어떤 사람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지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내 사진은 인물이 아닌, 모종의 ‘상태’에 대한 포트레이트예요. 제목과 사진에 여백을 두고, 사람들이 작품에 반응하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알크마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2000년 헬렌 반 미네는 일본으로 갔다. 그 나라의 언어를 몰랐고, 허리 숙여 인사하며 그 문화를 이해하는 척하지도 않았다. 다만 생면부지의 소녀들을 촬영했다. 짧은 한 순간,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충동적으로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처럼,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과 고밀도의 친밀감을 나누고 손 흔들며 쾌활하게 헤어지곤 했다. 그렇게 그녀는 네덜란드의 낮익은 이웃을 벗어나 라트비아, 러시아, 영국, 모로코를 여행했다. “10년 동안 정원을 일구었다고 쳐요. 어느 날 문득, 이제 이 정원에서 매 계절 피는 꽃과 식물은 전부 다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봤구나. 바야흐로 이사를 가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녀는 바람이 매서운 날 팔에 돌아난 소름, 작고 흐릿한 명, 드레스 밑단에 묻은 진흙 자국처럼 사소한 것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나는 감정을 담은 사진을 찍는 게 좋아요. 남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할 때 얼굴이 빨개지면 부끄럽겠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야말로 감정이지요. 보통 사람들이 쑥스러워하는 사소한 표현, 혹은 결점들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거리에 있으니까요.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도, 감정도, 영혼까지도 말끔하게 지워낸 완벽한 포토샵 작업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녀가 웃었다. 이번에는 하하, 하고 소리 내어 웃었다. 유쾌한 긍정의 웃음이었다. ■

에디터 | 신윤영